

광주시, 광천권역 '대·자·보 도시정책' 시범모델 추진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광천상무선·BRT·보행네트워크 구축 시민실천단 100명 실증 참여 '공론화' '광산길' 내년 4월부터 차 없는 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66개→150개 확대

광주시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대·자·보 도시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첫 실증무대로 '광천권역'을 선택했다.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대·자·보 도시 추진 원동력은 '시민참여'로 보고 실천단 100여명을 모집해 실증에 나선다.

시민실천단은 매년 실증공간을 10개소씩 조성하고 스스로 실천·공론화 등을 통

해 공감대를 확산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할인 정책과 함께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광주형 교통카드인 '광주 G-패스'가 출시되면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청년(19세~39세)은 30%, 성인 20%, 65세 이상 50%, 저소득층은 64%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돼 복구가 계획되고 있는 도로 17km를 대상으로 교통량, 보행량, 주변 토지이용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한다.

내년 5월 한국은행사거리~상무역사거리 구간(1.6km)과 주월교차로~중흥3거리 구간(6.9km)은 차로수 조정 등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금호지구 입구4거리~풍금4거리 구간은 차로 조정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장한다.

또 공사구간 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보도 정비공사를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자전거생활권 구축을 위해 첨단지구와 영산강 일원에는 자전거마을 시범지구가 조성되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개'도 재개된다.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전남대병원 '광산길'은 보도 폭이 확장되며 내년 4월부터 차 없는 거리로 본격 운영된다. '대각선 횡단보도'도 올해 66개소에서 2027년 150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를 일시에 대·자·보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광천권역을 시범모델로 삼아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점차 확산시키기로 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정~월드컵경기장~조선대~광주역)는 2026년 본격적인 운행이 예정돼 있으며 공사를 본격 시작한 2단계 구간까지 2030년 완공되면 광주 도심 곳곳은 30분내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여기에 마을 구석구석은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통해 연결할 계획으로 관련 용역이 내년 7월 추진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는 광천권역은 대·자·보 도시 실증모델 1호가 될 전망이다.

현재 광천권역은 복합쇼핑몰 2곳이 들어서며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돼 교통량은 하루 14만대에서 29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천상무선'과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를 동시에 도입하고 보행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

'광천상무선'의 총 사업비는 6925억원(국비 4155억원·시비 2770억원)이며, 'BRT'는 526억원(국비 205억원·시비 321억원)으로 추정된다.

광천상무선과 BRT의 시비 부담액 3091억원은 옛 방직공장터 개발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환 성공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절대적이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국 확산... 위기대응 '심각' 격상 철새도래지 예찰 등 관계기관 협업

전남도가 최근 전북 야생조류와 강원·충북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선제적 대응 등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선,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 예찰 등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실무반별로 상황총괄, 일선 시·군 긴급행동지침 이행 상황 점검, 인체감염 예방 대책, 주요 철

새도래지 예찰,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분담해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고위험지역 오리농가에 사육 제한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했다.

19일에는 시·군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철새도래지 방역, 축산 농가와 차량소독, 거점 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남일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거점 소독시설 운영실태, 농가와 계열사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자원순환 나눔 마켓 오픈

있다.

광주시,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광주시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2024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엄수했다.

가족단위 시민들이 지난 1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어서와 공익활동, 반가워 시민사회' 주제로 열린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에서 자원순환 나눔 마켓 등 공익캠프 부스를 살펴보고


나건호 기자

의 열사·희생자를 기렸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인 광주전남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날 합동추모제는 '또다시 앞으로'를 주제로 1부 추모공연, 2부 추모사, 3부 우리의 다짐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병하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른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공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보급,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